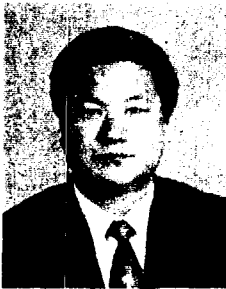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 ▶ 과명 : 소나무과
- ▶ 학명 : *Cedrus deodara*
- ▶ 영명 : Deodara Cedar, Hymalaya Cedar, India Cedar
- ▶ 한명 : 雪松
- ▶ 일명 : -

세계 3대 공원수로 불리우는 수종은 개잎갈나무. 금송, 아라우카리아 등 침엽수가 주종을 이루는데 개잎갈나무는 “히말라야”라는 산지명이 붙여져 “히말라야시다”라고 부르고 있다. 원산지에서는 수고 50m, 직경 3m에 이르는 대경목으로 자라고 있으며 1910년경 히말라야 북부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도입되어 주로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식재하였으나 최근들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반대 급부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에서 공원이나 학교 교정에 식재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보통 수종명에 “개”자가 붙어 있는 수종은 유사하다거나 일본에서 도입된 것 중 붙여지는데 개잎갈나무는 북한 지역에 분포하는 잎갈나무와 유사한 뜻으로 볼 수 있다. 개잎갈나무는 종자로 파종하였을 때 보통 30년쯤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최 명 섭
임업연구원

1. 생태적 특성

상록침엽수큰키나무로 수고 30m, 직경 1m에 달한다. 아프카니스탄, 히말라야 북부가 원산인 개잎갈나무는 내한성이 약하여 대전 이남에서 식재하였으나 점차 식재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토양은 유기질이 많이 함유되고 토심이 깊은 곳에서 생육은 양호하며 대기오염에도 강할뿐 아니라 생장이 신속하며 맹아력은 좋은 편이다. 그늘진곳이나 매마른 곳에서도 잘 견딘다.

2. 형태적 특성

나무 줄기가 수직으로 올라가 장대한 수형을 이루고 가지는 수평으로 길게 퍼진다. 1년생 가지는 털이 있고 밑으로 처지며 수피는 회갈색이고 얇은 조각으로 벗겨진다. 잎은 짙은 녹색으로 길이 3~4cm의 침형(針形)이며 짧은 가지에 20~60개가 물려 달린다. 꽃은 자웅일가화



▲ 개잎갈나무

로서 10~11월에 암꽃은 연한 녹자색으로 피는데 짧은 가지위에 위를 향해 달리며 수꽃은 황갈색 원추형으로 핀다. 열매는 길이 7~10cm, 지름 6cm내외의 구과이고 타원형이며 다음해 10~11월에 녹색을 띠는 회갈색으로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장이 신속하고 수관이 장대하고 웅장하여 기념수로 식재하며 잎의 색깔이 미려하고 수형이 아름다워 가로수, 공원수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자연 수형으로 키워도 아름답지만 전정을 하여 이려 형태로 모형을 만들어 식재할 만 하다. 흰색 건물을 배경으로 앞 부분에 식재하면 더욱 운치가 있다. 유럽 쪽에서는 내현성



개잎갈나무



▲ 개잎갈나무

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여 식재 면적을 넓혀가고 있으며 아래로 늘어지는 수양개잎갈나무는 수 십메타씩 옆으로 퍼지는것도 선발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다. 개잎갈나무는 크게 자라는 나무여서 좁은 곳에서는 식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 번식과 꺾꽂이로 한다.

□ 종자번식

잘익은 종자를 가을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저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면 발아가 잘되는데 파종후 15일쯤 지나면 발아가 되므로 해가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꺾꽂이

이른 봄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10~15cm 길이로 잘드는 칼로 매끈하게 자른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만든 삼목상에 꽂아 삼목하면 발근이 된다.

5. 그 밖의 용도

이집트에서는 옛날에 미이라를 만들때 이 나무에서 짠 기름을 썼으며 목재는 가장자리가 희고 누런 갈색이 나고 윤이 나며 향기롭다. 질기고 잘 썩지 않아서 짐을 짓거나 배를 만들고 가구나 칠도 침목을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조경수**